



연중 제12주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 가톨릭마산

## 기쁨

우리는 성서 곳곳에서 확신에 대하여 용기를 지니고, 적극적인 통찰력을 지니고 있어 어떤 권위에도 다른 누구에게도 의존하는 일이 없는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께서서 두려움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면모는 오늘 특히 잘 드러납니다. 권위를 가지고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권위는 진리의 권위입니다. 보통 권위라 함은 다른 사람들의 복종을 받을 권리를 뜻하지만, 여기서 확실하고 중요한 점은 복종하는 주체가 (악령과 병, 죄와 율법 등) 바람과 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 의존했다고 할 수도 있는 유일한 권위가 있다면, 진리 자체의 권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권위를 진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권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권위가 곧 진리의 권위라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권위에 호소했고 하느님의 권위를 소유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진리를 서슴없이 선포했습니다. ‘어찌면’이니 ‘아마’니 하는 말들은 나타날 여지조차 없었습니다. 조건도 단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보고 믿는 바가 진리임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삶의 진실이다. 아직도 믿지 못하겠느냐?’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에 쫓아, 예수님께서서는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보고,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믿기를 바랐습니다. 바로 이 점이 ‘권위’의 인상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소경에게 눈을 뜨게 해 준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요 사람들이 해방되며 구원되고 있다는 것이지, 누가 그것을 행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해방되는 것, 그것만이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엘벳 놀런, 『그리스도교 이전의 예수』) 그리고 그 행함의 주체는 늘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바란 것은 아예 어떤 권위에도 의존하지 말고 자기가 행하고 말하는 바의 참됨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마르 5,40)는 책망은 어떤 권위에도 의존하지 말고 행하고 말하는 바의 참됨을 보라는 예수님의 주장입니다. 진리가 네 눈이요, 입이요, 손발의 주체가 되게 하라는 주장입니다. 너로 하여금 진리가 행하도록 하라는 주장입니다. 또 ‘왜 겁이 많으냐?’(같은 구절)는 그 행함에 주저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도 할 수 있다’는 진리의 명령! 이어서 ‘너도 행하라’는 명령! 이 명령된 진리가 우리의 의무이니, 얼마나 기쁘지 아니합니까!



이수호 다미아노 신부 | 하동본당 주임



제 1 독 서	욘기 38,1-11
화 답 송	◎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제 2 독 서	2코린 5,14-17
복 음	마르 4,35-41

## 주일 진례

# 저희에게 잘못된 모든 이를 저희도 용서하오니(루카 11,4)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6월은 한국 천주교회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달입니다.

우리는, 남과 북으로 갈라져 지구촌에서 가장 오랜 분단의 상황을 겪고 있는 한반도가 이 분단과 휴전을 끝내고 다시 평화로워지기를 기도하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남북한이 분단의 과정에서 겪은 전쟁과 이념 갈등으로 주고받은 상처와 아픔은 지금까지 한반도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평화가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자신을 활짝 열어 놓아야 합니다.

70여 년 동안 갈라져 살아온 남북한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라는 같은 바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다른 시선으로 목소리만 높이면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치의 전제 조건이 화해이듯, 우리가 하나 되는 전제 조건은 평화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이루고자 용서하고 화해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인류 가족을 지킨다는 이유로 참으로 막대한 자원이 우리 삶을 위협하는 최첨단 무기와 핵무기를 보유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와 다른 군비에 투자할 돈으로 결정적인 기아 퇴치와 최빈국 발전 지원을 위한 ‘세계 기금’을 설립”(2020년 세계 식량의 날 영상 메시지)하자는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이 얼마나 용기 있는 결정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평화를 위한 기도와 더불어 저마다 삶의 자리인 가정, 이웃, 본당 공동체, 사회에서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들을 실천합시다. 아울러 북쪽의 우리 형제자매들을 기억합시다. 그들과 다양한 형태로 교류하고 공감하며 사랑의 나눔을 통한 연대의 정을 더욱 돈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저희에게 잘못된 모든 이를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날마다 청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평화와 화해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을 지내며,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매일 밤 9시에 바치는 주모경을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염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바칠 것을 다짐합시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마태 5,9)

2021년 6월 25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김주영 주교

2021. 6. 25.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 "서로 용서하는 화해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 ■ 9일 기도(6. 17.~25.)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봉헌(미사 전, 후)  
가톨릭 기도서 109쪽, 매일미사 191쪽

### ■ 심포지엄

주 제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가톨릭교회의 역할  
일 시 : 2021년 6월 16일(수), 오후 3시 ~ 5시 30분  
장 소 : 정동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산다미아노 카페

공동주최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Committee for the reconciliation of the Korean people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CATHOLIC INSTITUTE OF NORTHEAST ASIA PEACE

동아시아복음화연구원  
EASC | East Asia Evangelization Center



# 이제는 물 흐르듯

박윤식 에밀리오 수필가/ 가톨릭 문인회

오늘날 물만큼 귀한 존재는 없는 지경이 되었다. 만물이 물로써 이루어졌고 만물을 키우는 것도 물이라고 알려졌으니 말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리 잘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한때는 ‘물 무우따’라는 말을 그래도 즐겨 사용한 적이 있었다. ‘끝났다, 낭패 받다’를 상징하는 이 말은 어찌면 나쁜 의미로 쓰였던 것 같다. ‘빨리빨리’가 우리 행동의 근간이기도 했고 ‘많이많이’가 삶의 대세였기에, ‘물은 당시 풍조에 역행하는 힘없는 이의 접두어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래서 ‘물 났나’ 라거나 ‘물 티’ 등은 좀 비아냥거리는 투로 쓰이기도 했다. 그 물이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다.

사실 물은 서로 간에 잘도 어울린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다투지를 않는다. 온 그대로 밀려간다. 다들 낮은 곳으로만 간다. 어찌다 깊은 평퍼짐한 웅덩이에서는 머물다가, 뒤따르는 동지들과 다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무리를 이뤄 더 낮은 곳으로 길을 재촉한다. 그렇게 가다가 또 솟구친 산이 막으면 멀리 돌고 또 돌아서가고, 깨진 바위틈에는 몸을 막 부수며 비집어 빠져나가고, 가파른 계곡에는 숨 가쁘게 뛰고, 덜렁 자빠뜨린 절벽에는 막 뛰어내린다. 그렇게 물은 온갖 것을 다 받아주는 바다로 스며든다. 이렇게 물은 가장 낮은 곳, 그곳으로 나아간다.

낮은 곳, 대다수의 사람이 싫어하는 곳이다. 지금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이지만, 느릿느릿한 물이 가는 그곳은, 한때는 비천하고 버림받은 곳, 소외된 이가 억압받는 곳이기도 했다. 그래서 ‘물 무우따’하면 어찌면 별 볼일 없게 된 것의 상징이기도 했었다. 작은 이가 된 것이다. 그렇지만 이 약자가 이제는 무한한 가능성을 내뿜는다. 소위 서로 연대해 가면서 힘을 곳곳에다 발산한다. 마치 낮은 곳으로만 찾던 그 물이, 오랜 기간 같고 같아 짙돌을 까부수듯이 말이다.

이제 세상은 좀 변했다. 우리네 삶도 예전의 그 모습이 아니다. 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강자가 그리 설치지도 않는다. 돈깨나 좀 있다고 명함 올리려 아무 직함이나 덜컥 쥐지도 않는다. 순리에 따르는 질서가 곳곳에 자리 잡았다. 소수의 선동가가 펼치는 막장은 다 끝나가고, 다수의 작은 힘이 모인 정의가 봇물 터지듯 솟구친다.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내친다. 이런 개혁의 소용돌이에도 하나의 버팀목은 꼭 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연민의 정이다. 그분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저 낮은 곳으로 손수 가셨다. 우리도 저 물처럼, 좀 더 낮은 그곳으로 갈 수 없을까?

## 사목공제회 신학생 후원금 전달

교구 사목공제회는 신학생들을 위해 2천만 원을 후원하였다. 사목공제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학생들에게 후원금을 지원하였다. 이번 전달식은 6월 14일 성소국장 사무실에서 정진국 바오로 신부(사목공제회 이사장)가 공제회원들을 대표하여 최문성 마르코 신부(성소국장)에게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 사각지대와 국외자들

조민아 마리아 교수/ 조지타운대학교

## 지평과 초월

어느덧 20년 넘게 타향에서 살고 있는 내게 방학 휴가를 틔탄 고향 방문은 설렘 가득한 축복이다. 그리고 보고 싶던 가족과 친구들을 만날 기쁨으로, 강 따라 고즈넉이 펼쳐지는 우리 산하의 능선을 눈에 담고 발로 걸을 기대로,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변할 줄 모르는 토종 입맛을 당기는 맛집을 찾아다닐 생각으로, 휴가가 시작되기 몇 주 전부터 마음이 부풀고 행복해지곤 한다. 막상 도착하면 해마다 조금씩 변해 있는 풍경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 하루 이틀 지날수록 이제는 여행자로, 혹은 손님으로 고향에 머물고 있다는 현실이 일깨워져 한 톨 외로워지기도 하지만, 또 그 덕에 정착민은 잘 보고 겪지 못하는 사회의 균열된 지점들을 발견하게 되고, 국외자들을 향한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한다.

바로 일주일 전에 인천 공항에 내린 이후 자가격리를 하면서 나는 고향의 낯섦을 어느 해보다도 실감하고 있다. 스마트폰 기종이 매우 낡아 전화로 사용할 수 없고, 국내 발급 카드가 없는 까닭에 자가격리와는 별도로 ‘고립’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거의 모든 구매가 국내 발급 카드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고, 또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그 두 가지가 없는 나는 음식을 배달 시킬 수도, 간단한 생필품을 구입할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에 던져지고 말았다. 부모님들 또한 디지털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으시니 원거리에서 홀로 격리 중인 나를 도울 길이 없어 안타까워하셨다. 물론 팬데믹 탓이 크지만, 사실 이 거리감은 몇 해 전부터 서서히 느껴오던 것이다. 생활 반경의 디지털화는 그 시스템 안에 들어 있는 이들에게는 물과 공기처럼 익숙하고 편하지만, 나 같은 이방인이나 혹은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문화, 경제, 언어, 신체, 연령 등 다양한 이유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국외자들에게는 사소한 일 처리도 까다롭고 혼란스럽기 그지없는 불친절한 사각지대를 조성한다.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이전엔 손품 발품 팔아 해결할 수 있었던 상황들마저 팬데믹으로 인해 봉쇄되어 사람들이 시스템 뒤로 숨어 버리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예 없어져 버린 것이다. 참으로 고맙게도, 아껴 주시는 벗들과 가족의 도움 덕에 결코 부족함 없는 격리 기간을 보내게 되었지만, 그 짧은 며칠 동안에도 이렇듯 아찔한 경험을, 디지털 문화뿐 아니라 소위 “정상, 보편, 상식”을 기준 삼아 작동하는 모든 시스템 밖에서 살고 있는 이들이 팬데믹 시대를 지나며 겪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불편하다.

팬데믹은 실로 우리 사회의 많은 사각지대를 노출시켰다. 물론 종식이 되려면 아직 먼 길을 가야 하겠지만 백신 보급으로 인해 조금씩 숨통이 트여가는 현실이 반갑고 고마운 한편, 이제껏 노출된 사회의 취약한 지점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우려가 되기도 한다. “정상, 보편, 상식”의 범위에 포함되는 이들의 편의를 위해 시스템을 더 공고하게 만들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적응만을 강요하게 되지는 않을까. 원인을 분석하고 불편을 헤아리기 보다 메꾸고 통합하기 급급해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의 기회조차 함께 묻어 버리지는 않을까.

역사적으로 팬데믹은 병이 관통하던 시기뿐 아니라 그 이후의 사회에도 큰 위기를 불러왔다. 스페인 독감이 전횡했던 1918년의 이듬해, 미국은 ‘붉은 여름’이라 이름 붙은 폭력의 계절을 맞았다. 생존을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했던 사회적 협력이 느슨해지고, 병의 종식이라는 확실한 목표와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폐허가 된 삶과 쉽게 회복되지 않는 경기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불안과 분노였다. 게다가 긴 시간 사람들과 건강한 만남을 하지 못했던 탓에 쌓인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균형으로 인해 사소한 말다툼과 마찰조차 쉽게 집단 폭력으로 이어지기 일쑤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가장 위협을 받는 이들은 제거되거나 상해를 입어도 주류 시스템에 교란을 일으키지 않을 취약 계층들과 타자들이다. 백인들은 징벌을 내리듯, 마침 새로운 지역으로 유입하기 시작했던 흑인들을 표적 삼아 때리고 살해하고 약탈하는 폭력을 행사했다. 이는 2년 후 미국 인종 차별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사건, 1박 2일 동안 백인들이 흑인들의 집단 거주지에 쳐들어가 흑인 수백 명을 죽이고 다치게 한 털사 인종 학살(Tulsa race massacre)로 이어진다. 한마을이 온통 피로 붉게 물들었다 하여 그 계절의 이름이 ‘붉은 여름’이다.

우리는 모두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날을 애타게 기다리지만, 사실 그 흥겹고 설레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눈을 똑바로 뜨고 마음을 다잡고 주변을 둘러 ‘사람’을 살펴야 할 것이다. 대면 회합을 앞두고 교회가 지금부터 염두에 두어야 할 일 중 하나다. 병균이 아닌 사람이 사람을 해하고, 사회의 외곽과 주변에 존재하는 이들의 삶을 지우고 파괴해 버릴 폭력의 계절은 어찌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지 모른다.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친숙한 ‘이웃’의 범주 밖 보이지 않는 이들, 혹은 보여서 불편한 이들에게는 사회와 공동체의 생존, 회복이란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한다. 그 옛날 십자가 형장에서 예수와 바라빠를 앞에 두고 그들에게 더 익숙했던 종교 민족주의 정치 지도자 바라빠를 선택하며 예수를 버렸던 유대 민중들처럼 말이다. 빌라도는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안다. 그의 피에 우리의 책임이 있음을. 그리고 모든 생명에 우리의 책임이 있음을.



1921년 털사 인종 학살로 폐허가 된 현장 사진



### ▶ 위원회/기관/단체

#### 마리아사제운동 평신도 체나클로 6월 기도 모임

일시: 6월 21일(월) 13:00~15:00  
장소: 교구청 1층 대강당  
준비물: 메세지 책, 미사 준비  
문의: 회장 010·9399·5454

#### 제2회 민족화해를 위한 평화학교

일시: 6월 22일(화) 19:30  
장소: 명서동성당  
대상: 신자 누구나  
내용: 미사, 평화공연(음악인-박영운),  
강의(김유철 스테파노)  
문의: 교구 민화위 055·261·8201

#### 교구 전례꽃꽂이회 월모임

일시: 6월 24일(목) 13:30  
장소: 교구청

### ▶ 기타

#### 프란치스코 전교봉사 수녀회 성소자 만남 및 상담

일시, 장소: 전화 면담 후 결정  
대상: 국·내외 전교와 봉사에 관심있는  
39세 이하 미혼여성  
문의: 김 엘리사벳 수녀 010·4732·8247

#### 예수회센터 여름방학 특강 동영상 녹화 강의(7월 개강)

동영상 링크 발송, 1주일 동안 수강  
내용: ·의식(양식) 성찰, 어떻게 할 것인가?  
(권오면 신부)/ ·구약성경 아카데미-  
유배이후의 역사(주원준 박사)/

·하느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오해와  
성서학적 진실(임숙희 박사)/ ·육화의 영성-  
일상을 살아가는 영성과 겸손(손우배 신부)  
문의: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자 모집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신청: 수시 가능 / 검색창: “사이버성경학교”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 대안교육 산자연중학교 전입학안내

전입학설명회: 7월 3일(토) 14:00  
여름진학캠프: 8월 7일(토)~8일(주일) 1박 2일  
대상: 현 초6, 중1  
문의: 경북 영천시 산자연중학교 054·338·0530

#### 양업고등학교 대안 좋은학교(Quality School) 연수

일시: 7월 17일(토)/ 장소: 본교  
대상: 좋은학교에 관심있는 교사·학부모  
접수: 7월 6일(화) 10:00~ 홈페이지 팝업창  
회비: 7만 원(신입생 입학전형 안내 포함)  
문의: 충북 청주시 양업고등학교 043·260·5076  
※ 상기 일정은 코로나19로 변경될 수 있음

#### 수도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 심화피정

일시: 8월 5일(목)~8일(주일) 3박 4일  
장소: 수리치골 성모성심의집/ 신청: 32명(1인실)  
피정비: 35만 원/ 지도: 허성준 신부(외)  
문의: 한렛다 봉사자 010·8599·3127

#### 나자렛예수수녀회 피정 및 교육

대상: 개인 또는 20명 이내 단체(코로나 종식  
전 5명 이내)

피정: 성경(말씀)피정, 전례(기도)피정  
교육: 실천 교리 교육, 첫영성체 교리 교육  
(인성, 신앙)  
장소: 나자렛예수수녀회 본원 피정의 집  
문의: 010·2133·4903

####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1:00  
장소: 마음의집(창원시 도계동)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운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 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의: 010·3551·2038

#### 발달장애인의 보통의 삶을 지원하는 시민옹호 사업

사업명: 손옹이(손에 닿을 곳에 시민옹호인이  
있다)  
활동기간: 6월~12월/ 지원: 창원복지재단  
모집대상: ·마산거주 성인 발달장애인 7명,  
·발달장애인과 인권에 관심있는  
지역주민 7명  
내용: 발달장애인과 시민옹호인이 1:1 매칭되어  
다양한 활동 지원(예: 동네 카페가기, 도서관 회  
원등록하기 등 당사자가 원하는 활동 가능)  
문의: 마산장애인복지관 손경희 055·247·5194

#### 진해장애인복지관 파첼 합창단 피아노 반주자

(재능기부) 모집  
일시: 매주 (목) 10:00~11:30(봉사 횟수 조정 가능)

■ 제주성지 순환버스 59,000원  
제주성지 6곳/ 2명이상 매일 운행

■ 한국성지 167 완주  
7. 19.(월)~7. 22.(목) 대전교구 4일

미카엘여행사 010.8650.9690  
[www.michaeltour.co.kr](http://www.michaeltour.co.kr)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도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억로 489(팔용동)  
구자롱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Viriditas “생명을 주는 푸르름” 성녀 힐데갈드

힐데갈드 화장품

힐데크림  
힐데스킨  
EM힐데비누

문의·주문 0502-700-1140  
대표 이정순 힐데 수녀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굴잼 410g  
(포도잼은 9월 말부터 구매 가능)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010-2652-0706



장소: 진해장애인복지관  
 내용: 파첸 합창단 피아노 반주 봉사(재능기부)  
 문의: 합창단 담당 055·540·0440  
 ▶ 소수 인원으로 연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방역, 마스크,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교구청 직원 모집

홍보국에서 함께 일할 임시직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 임시직 1명(2021. 7. 1.~2022. 7. 31)  
 접수: 6월 25일(금)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편 혹은 방문)

특이사항: 홍보국 업무 보조, 컴퓨터 능통자  
 (웹디자인, 웹서버 관리 가능자)

주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천주교 마산교구청 사무처(우 51727)

문의: 사무처 055·249·7019

▶ 면접일자 개별통보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천주교마산교구 민족화해위원회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 한반도 평화기원미사

- 일시: 6월 25일(금) 19시
- 장소: 마산교구청 강당
- 주례: 하춘수 신부(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 강론: 이기문 신부(삼위일체수도회)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마태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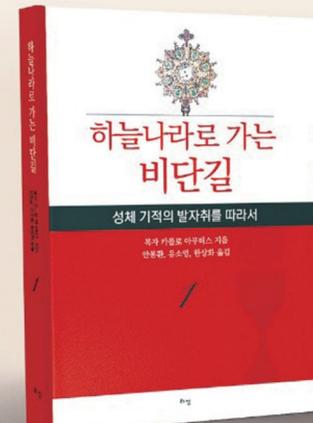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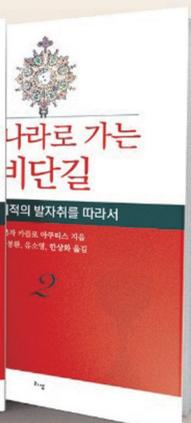
# 하늘나라로 가는 비단길



### 성체 기적의 발자취를 따라서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 지음  
 안봉환, 유소영, 한상화 옮김

1,2권 칼라판 세트 20,000원

신간소개 

### “하늘나라로 가는 비단길”

요즘 열다섯 살 또래의 소년들은 성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는 불과 열다섯 살의 나이에 백혈병 판정을 받고 투병하다가 2006년 세상을 떠났지만, 인터넷을 통해 복음화에 크게 이바지한 카를로 아쿠티스 Carlo Acutis 복자입니다. 여느 소년들처럼 평범하게 자랐지만, 신심 생활에 대한 성향만큼은 남달랐습니다. 날마다 묵주기도를 바쳤고, 매일 미사에 참례하였으며,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안에 계신 주님을 경배하고자 자주 감실 앞에 머물렀습니다.

코로나19로 성체성사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고 체험하는 우리에게, 이 책은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현존과 성체성사의 참된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성찰할 수 있는 좋은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 성체 기적의 발자취를 따라 순례의 여정을 떠나 보시지 않겠습니까?

구입 문의: **천주교 전주교구 문정성당**  
 사무실: 063)225-9100/ Fax 063)225-9101  
 ※ 모든 수익금은 성전 건립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 정의와 양심, 그리고 진리를 위해 싸운 바비도- 김성한의 『바비도』

김은정 엘리사벳 교수/ 경남대학교

지금 앞에 놓인 성경이 한글이 아니라면? 아마 대부분 독자는 읽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오랫동안 라틴어가 원칙이었으며 다른 언어로 번역되는 것이 금지되었다. 15세기 영국도 마찬가지였다. 1382년에 위클리프의 영어 번역본이 나와 있었지만 이 복음서를 읽다가 들키면 죽음에 처해졌다.

당시 한 재봉 직공이 이러한 교회의 횡포에 대항하다가 처형당했다. 김성한의 『바비도』는 이 먼 나라의 사건을 소재로 쓴 소설이다. 가난하고 힘없는 재봉 직공 바비도, 그는 왜, 어떻게 교회에 대항하였을까.

15세기 초엽 헨리 4세가 집권하던 영국은 교회의 독선과 부패가 극심하였다. 특히 위클리프가 번역한 영어 복음서를 몰래 읽다가 적발되면 사형에 처해졌다. 주인공 바비도 역시 번역 성경을 읽었다는 죄목으로 재판에 넘겨진다.

그런데 성경 모임의 지도자들조차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죄라고 인정한다. 바비도는 그들의 비겁한 모습에 분개하면서 자신을 끝없이 회유하려고 하는 교회 세력의 거대한 위선을 절감한다. 그들은 단지 ‘힘’이 있기에 옳고 그른 것을 떠나 남을 억압하는 것이다.

재판관은 바비도에게 번역 성서를 읽은 것을 죄로 인정하라고 요구한다. 이를 인정하는 말 한마디면 살 수 있지만, 바비도는 거절한다. 자신들이 힘이 있다고 하여 죄가 아닌 행동을 죄라고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비도는 이 부조리한 세상에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면서 ‘인간 폐업’을 선언한다.

결국 그는 처형장으로 끌려간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때, 태자 헨리가 나타나 죄를 반성하기만 하면 목숨을 구해 주겠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바비도는 ‘지옥에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는 말을 던지며 사형대에 오른다.

바비도의 몸에 불을 지피는 순간, 갑자기 태자 헨리가 불을 끄고 바비도를 끌어내리라고 명령한다. 바비도의 용기와 신념에 감동하여 무조건 살려 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바비도는 이를 뿌리치고 당당히 사형대에 올라 화형을 당한다.

**가난한 자, 괴로워하는 자를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본의일진대, 선천적으로 결정된 운명의 밧줄에 묶여서 라틴말을 배우지 못한 그들이, 쉬운 자기 말로 복음의 혜택을 받는 것이 어째서 사형을 받아야만 하는 극악무도한 것이란 말이나?**

이 소설이 꼭 신앙 이야기만은 아니다. 타협하지 않고 스스로 화형의 길을 택한 바비도처럼 부조리한 권력에 맞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는 작품이다.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성경’처럼 누구에게나 자유의지는 소중하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가 있고, 생각의 자유가 있으며, 말의 자유가 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이다. 그리스도 정신은 바로 이렇게 인간을 귀하게 여기는 정신일 것이다.